

## 폐철길이 이야기가 있는 명소로 ... 강릉 월화거리

강릉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월화거리는 옛 강릉역에서 시작해 부흥마을에 이르는 폐철도길 2.6km를 따라 조성된 거리공원이다. 강릉 시내를 가로지르던 강릉선 철길을 지하화하면서 공원과 산책코스, 문화광장을 만든 곳으로, 강릉의 역사와 도시의 변천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월화거리는 한 개의 공원과 세 개의 광장이 이어져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중앙시장과 맞닿아 있는 생활문화광장이다. 닭강정, 아이스크림 호떡 등 시장의 히트상품은 물론이고, 가성비 좋은 먹거리들이 즐비하다. 간이역처럼 만든 기념품 가게도 있고 주말 밤에는 야시장도 열린다. 생활문화광장을 지나면 남대천을 가로지르는 월화교와 월화정이 나온다. 월화정은 천 년 전 무월랑과 연화부인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정자로 월화거리의 이름의 유래가 된 곳이다. 월화교와 월화정에서는 탁 트인 남대천과 시내 전망을 구경할 수 있다. 옛 강릉역 방향에는 말 나눔터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아담한 화단과 숲길 사이로 ‘널 응원해’ ‘토닥토닥’ 같은 따뜻한 말이 눈에 들



어온다. 한적한 동네 풍경과 어우러져 산책의 여유를 만끽하기 좋다. 이어지는 임당 광장과 역사문화광장은 철길을 그대로 보존한 산책로를 따라 사진 찍기 좋은 포토 스팟이 조성되어 있다.

● 주소 :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1

## 근대 장터거리의 삶이 고스란히 ... 영덕 영해장터거리

영덕 영해장터거리는 드라마 세트장 같은 분위기와 역사적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영해 지역의 생활의 중심지로 영해 동학혁명, 평민 의병장 신돌석 장군의 항일 투쟁, 3·18 만세 운동 등이 일어난 역사적인 장소다. 특히 장터는 당시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근대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어 2019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됐다. 양조장과 사택, 금융조합, 일제강점기 상가주택 등 우리나라 근대의 건축적 특성과 당시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건물들을 둘러볼 수 있다. 영덕군은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은 문화유산 야행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영덕 최대 오일장이자 경북지역에서도 손꼽히는 영해 오일장도 가까이에서 열린다. 영해 오일장은 만세시장이라 불리는 상설시장을 중심으로 5, 10일에 열리며, 예로부터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등 내륙지역에 수산물을 공급하던 전통 있는 오일장이다. 만세시장이라는

이름은 3·18 만세 운동을 기념해 붙였다고 한다. 최근 문화장터조성사업을 시작해 시장의 역사를 담은 기록 사진을 전시한 사진관,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예술작품 전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예주2길 10

